

번뇌 소멸...마음 평온



29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란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항상 즐거운 날’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좋은 날’이 얼마나 될까? 날마다는 고사하고 이따금씩 좋은 날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다고 징징 찌는 날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을까?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라는 말은 선어록의 백미 <백암록>에 등장하는 화두로 중국의 선승 운문(雲門, 864-949) 선사의 말씀입니다. 선어(禪語)도 언어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석한다고 해도 그것은 끈구름 잡는 추상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우선 한문에서 똑같은 글자가 겹치면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일일(日日)’은 ‘날마다’이고 ‘호일(好日)’은 ‘좋은 날’, ‘길일(吉日)’ 또는 ‘생일(生日)’을 가리키고 ‘시(是)’는 ‘바로 ○○이다’라는 뜻입니다. 생일날은 웬지 기분이 좋고 잘 먹는 날이므로 ‘날마다 생일’이라고 해도 되고 ‘날마다 즐거운 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선에서 말하는 ‘날마다 좋은 날’이란 사실 생일도 길일도 운수가 좋은 날도 아닙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란 바로 번뇌 망상과 이별한 날, 근심 걱정 등 번뇌 없는 날, 또는 마음이 평온하고 활기찬 날을 가리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근심과 걱정 등 번뇌가 없어야 합니다. 번뇌가 있으면 그날은 괴로운 날입니다. 이런 날이 겹치면 ‘날마다 좋은 날’은 간데없고 ‘우울한 날’이 연속됩니다. 만사가 싫어지고 삶에 의욕이 없어집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좋은 날을 맞이하려면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일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언가 운수나 재수 등 일진(日辰)에 좌우되고, 주시 값이 올라야 하고, 옆에 함께 놀아 줄 친구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타자에 의지한 즐거움입니다. 주체적인 행복, 주체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날마다 좋은 날과 관련된 선문답입니다. 선원에서 보름날은 정기설법을 하는 날입니다.

보름날 운문 선사는 대중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대들에게 15일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5일 이후의 일에 대하여 한 마디씩 해 보라.”

그러고는 정작 대중들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 하고는 조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15일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15일 이후의 일에 대하여 한 마디씩 말해 보라”는 이 단락을 말하자면 문제를 제기하는 제시어(지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은 답어입니다. 말하자면 운문 선사는 스스로 문제를 제시한 다음 답까지 한 것입니다. 혼자 차(車)와 포(包)를 다 친 것입니까?

‘날마다 좋은 날’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근심이나 걱정 등 번뇌 망상이 없는 마음 상태, 무 집착, 공

근심·걱정 등 번뇌 없는 깨달음 상태 무차별·부분별, 중도·공 입장이어야

(좌)의 상태, 깨달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15일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15일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해 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선문답을 푸는 키포인트는 바로 15일 이전과 15일 이후에 있습니다. 옛 중국의 선원에서 조실스님의 법어는 한 달에 여섯 번(1·5·10·15·20·25일) 있었습니다. 운문 선사가 이 법어를 한 날은 마침 보름(15일) 날이었습니다. 15일은 한 달의 딱 절반입니다. 한 달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둘로 나누는 것은 이분법입니다. 그것은 차별이고 분별심이며 집착이고 중생심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무차별·부분별이어서 하고, 중도·공(空)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로 나눈다면 중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덧붙인다면 15일 이전은 과거입니다. 과거사를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15일 이후 즉 미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향후의 삶, 비록 이것은 수행자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행자로서 향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한 마디씩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나날을 보내자면 먼저 번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번뇌에 휘둘리지 않자면 감정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자면 모든 것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둘로 나누면 어느 한 쪽에 경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문 선사가 말한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란 사실 제자들에게 내 민 합정, 트릭입니다. 그냥 ‘일일시호일’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15일 이전과 이후를 나는 것은 사실 차별심이라는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드는 자는 아직 애송이입니다. 걸려들지 않고 답하는 자는 고수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음 여인들의 수행법

“밝고 밝게 보니 한 물건도 없습니다”

29 묘총 비구니

간화선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 송나라 때의 대혜종교(1088-1163) 선사의 법을 이은 제자는 육왕준박, 개선도경, 설봉운문 등 무려 110인을 넘는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는 제자자와 비구니 스님들이 적지 않았다. <인척보감>에는 대혜 선사의 걸출한 비구니 제자인 묘총(妙總) 스님에 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제종 대혜파인 자수사(資壽寺) 묘총 선사는 소제(蘇氏)이며 원우(元祐: 1086-1093)년 간에 승상을 지낸 고위관료의 손녀다. 열다섯 살 때 선(禪)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으나, 철이 들면서 ‘생(生)은 어디서 오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유독 의심을 냈다. 그 생각만 하다가 홀연히 느낀 바 있었으나 스스로 별것 아니라 여기고, 사람이면 다 그런 줄 알고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부모의 명을 받들어 서서(西徐)의 허수원(許淵)에게 시집갔는데, 얼마 안 돼서 세상살이가 매우 싫어졌다. 계를 지키고 몸가짐을 깨끗이 함으로써 자족했으며, 세속에서 벗어나 노닐고자 하였다. 뜻을 세워 옛 사람을 흠모하다가 마침내 천염사의 원(圓) 선사를 찾아보니, 원 선사가 물었다.

“규종의 숙녀가 어떻게 대장부의 일에 끼겠는가?”
“불법에서 남녀 등의 모습을 나눴습니까?”
원선사가 “향로 탁자가 있으니 마음대로 치라만, 없었으면 어찌하였겠나?” 하고 물었다.
묘총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원 선사가 부르면서 말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이러는가?”
“밝고 밝게 보니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영가(靈臺玄覺) 스님의 말이다.”
“남의 말을 빌어서 내 기분을 나타낸들 무엇이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진짜 사자새끼로구나.”

묘총은 강저(江浙) 지방의 큰스님들을 거의 다 찾아보았지만, 오직 묘희(妙喜: 대혜 선사의 아호) 선사를 만나뵈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

원 선사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마음이 부처’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오래 전부터 스님의 이름을 들어왔는데, 겨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덕산 스님의 문하에 들어간다면 몽둥이를 맞겠구나.”
“스님께서 만일 그러한 법령을 시행한다면 인천(人天)의 공양을 헛받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직 멀었다.”

이에 묘총이 손으로 향로 탁자를 한번 때리니,

마침 묘희 선사가 풍제천(馮濟川)과 함께 배를 물고 가화성에 도착하니, 묘총이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이튿날 묘총의 남편 허수원이 묘희 선사에게 설법을 청하니, 선사가 대중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이 가운데는 어떤 경계를 본 사람이 있다. 이 산승은 사람을 간파할 때 마치 관문을 맡아보는 관리와 같아서 누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세금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알아차린다.”
그리고는 법좌에서 내려오자 묘총이 마침내 법호를 지어달라고 하여 묘희 선사는 ‘무착(無著)’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다음 해에 묘총은 경산총림(徑山叢林)에서 하안거를 보냈는데, 하루 저녁은 좌선을 하다가 홀연히 깨닫고 계승을 지었다.

철 들면서부터 ‘생은 어디서 오나’ 의심 대해 선사 인가받고 입실제자된 비구니

“갑자기 본래면목에 부딪히니/ 온갖 재주가 얼음녹듯, 기와장 무너지듯 했네/ 달마는 하필 서쪽에서 와가지고/ 2조의 헛된 삼배를 받았는가/ 여기에 이질까 저질까 물어본다면/ 줌도둑 한떼거리가 대패했다 하리라.”

묘희 선사가 이 계승을 보고 “그대는 이미 산 조사의 뜻을 깨달았으니 단칼에 두쪽내듯 당장에 알아버렸다”며 인가하고, 묘총을 입실(入室) 제자로 받아들였다.

묘총 선사는 ‘생(生)은 어디서 오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큰 의심이 저절로 화두가 되어 생사의 일대사를 해결하고 자유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 제8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사 모집-광장 월정사가 제8기 단기출가학교 행사 모집에 나섰다. 신청은 8월 20일 마감으로 단기출가학교는 9월 17일 시작해 10월 16일 끝난다. 한국 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석법법의를 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행사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동참해보는 것을 어떻게.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sang.org/buddhism/06/year_train.htm)에서 신청하면 된다.

● 육자장사 단식수련회와 매너스피치캠프-남양주 육자장사가 ‘성인을 위한 명상 단식수련회’와 제2회 영리더를 위한 매너·스피치캠프 어린이수련회를 개최한다. 단식수련회는 7월 24~27일, 31일~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동참금은 10만원. 발성·발음·스피치·리더십·상황별 매너·예절

교육이 병행되는 어린이수련회는 7월 27~29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동참금은 3만원. (03)871-0101

● 조계사 방생법회 및 철야100일기도=서울 조계사가 8월 16일 불기 2552년 하안거회향 영가천도 조류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연천 원심원사에서 봉행될 조류방생법회는 한국조류보호협회와 함께 진행된다. 동참금은 2만5000원. 한편 7월 19일 입재한 제5차 철야100일기도 천수다리나독송 법회는 10월 26일까지 매일 저녁 8시~익일 새벽 4시 철야기도로 이어진다. (02)732-2187

● 여래사 수능일 백일기도=일산 여래사가 ‘수능 입시 100일 기도’를 8월 5일 입재한다. 11월 12일 회향까지 100일간 수능 입시를 보는 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진행된다. (03)905-7766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하는 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현황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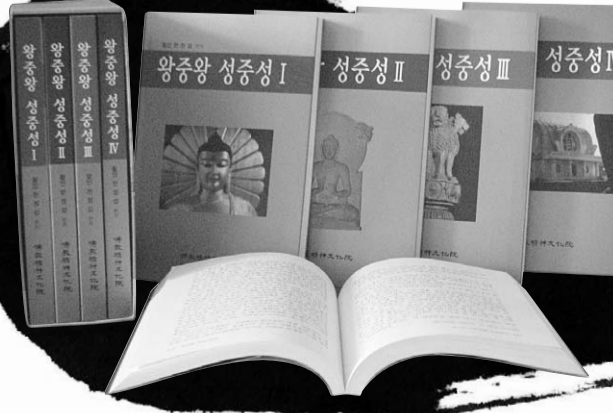


■ 환안 스님

‘왕중왕성중성’ 王中王 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환안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낸 역작...

■ 환안(韓正植)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불교 교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구입문의: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법수선재
www.bonnam.com



수신재 역음 · 문화영역 지 · 328쪽 · 값 12,000원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물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수신재 역음 · 356쪽 · 값 12,000원

그 해답은 명상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